

무더위에 전통시장 울고, 대형마트·백화점 웃고

시장 매출 20% 감소... 경기지수 18.7포인트 ↓

백화점·편의점 등 6월 매출 4.1~9.2% 증가

“더위에 손님 발걸음은 줄고, 장사하는 사람도 지치고, 여름이 무섭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전통시장 상인들이 무더위와 경기침체에 신음하고 있다. 북날이 성수기인 일부 육가공업체를 제외하고 최근 전통시장의 전반적인 매출은 지난 봄에 비해 20% 가량 감소했다. 반면 대형마트와 백

화점, 편의점의 매출은 일제히 증가했다.

25일 시장경영진흥원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7월 업황전망 경기동향지수는 65.3으로 전월보다 무려 18.7포인트 하락했다. 여름은 매년 전망지수가 낮게 나오는 편이지만 올해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더 낮아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전망지수는 설 명절과 봄 날씨에 힘입어 1월 70.7

에서 4월 100.3까지 올랐으나 5월 93.8, 6월 84.0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경기동향지수는 전국 17개 시·도 1306개 점포를 조사한 것으로, 0에서 200 척도에서 100 미만은 전월보다 악화·하락, 100 이상은 호전·상승을 의미한다.

시장경영진흥원 관계자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시즌, 태풍 등으로 날씨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망지수 하락은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한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광주 양동시장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이 크긴 하지만 대부분의 매장에서 매출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더위가 극심한 한낮엔 손님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 상인들은 업황이 나빠진 이유로 경기 침체(36.4%)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날씨·기후(35.9%), 제품 특성상 비수기(27.2%), 대형마트·SSM 영향(17.1%)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대형마트가 집중된 서울이 52.9로 가장 낮았고 제주(8.6%), 전남(80.2%), 충남(78.6%)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

은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편의점의 지난 6월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9.2% 증가했다.

특히 대형마트는 추석·설 명절이 낀 달을 제외하고는 14개월 만에 처음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늘었다. 냉방가전제품이 매출 신장세를 이끌었다.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4.2% 증가했다. 백화점의 6월 매출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늘어났으며 편의점도 전년 동월 대비 9.2%나 매출이 신장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상의, 소비자 500명 '유통업 사회공헌' 조사

대형마트 '최고' 편의점 '꼴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유통업체 중 대형마트의 사회공헌활동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유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가 가장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사회공헌활동(53점만점)에 대해 점수를 매기게 한 결과 대형마트는 3.00점, 전통시장 2.96점, 백화점 2.85점, 인터넷쇼핑 2.77점, 슈퍼마켓 2.71점, TV홈쇼핑 2.69점, 편의점 2.47점이었다.

대한상의는 “점포규모가 큰 대형마트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취약계층 지원이나 기부활동, 교양강좌 개설 등도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한몫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 유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29.6%)가 부정적 평가(28.2%)보다 다소 많았지만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지 않

았다. 글로벌 SPA의 경우 17.2%대 49.4%, 글로벌 명품기업의 경우 14.2%대 59.8%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선호하는 유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는 질 좋은 상품을 적절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40.8%)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지속적인 고용창출(20.2%), 지역사회 공헌활동(16.2%), 기업윤리 확립 및 법 준수(13.8%), 환경보호 노력(5.2%) 등이 뒤를 이었다.

상품 구입때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됐는지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9.5%가 “그렇다”고 답했다. 10명중 8명가량이 “취약계층 지원이나 기부활동, 교양강좌 개설 등도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한몫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사회공헌 관련 상품을 구매한 경험(복수응답)으로는 친환경상품(94.4%), 매출의 일부가 기부되는 상품(83.7%), 지역사회 기여 상품(74.9%),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상품(57.7%) 등이 꼽혔다. /연합뉴스

북신안농협-압해농협, 연내 RPC 통합

(미곡종합처리장)

내달 통합추진 TF팀 구성

북신안농협(조합장 최영)과 압해농협(조합장 한인호)이 25일 연내에 RPC(미곡종합처리장)를 통합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따라서 오는 8월부터 통합추진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간다.

또한 관내 참여를 희망하는 비 RPC 8개 농협에 대해서도 현물 및 출자금 등 지분형태로 통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RPC통합에 따라 정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가공시설현대화자금 및 비매입자금 등 자금지원을 받게 되고, RPC운영 여건에 따라 북신안농협이 주관농협으로, 압해농협RPC는 RPC시설은 해체하고 보관시설만 사용하게 될 것 전망이다.

박종수 전남농협 본부장은 “신안지역 RPC통합은 오랜숙원 사업으로 이번 통합을 통해 가공시설 현대화와 고품질 쌀 생산이 가능해 집에 따라 신안지역 농가의 실익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5일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창립 14주년 기념식'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의 표창을 받은 광주지역 모범여성기업인들이 강 시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여성이 사회·산업 행복시대 열어야”

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창립 14주년... 21명 표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조애옥·한국에텍 대표이사)가 25일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창립 1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낙연 국회의원,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산업 현장에서 공로가 큰 모범 여성기업인 21명에게 표창을 실시했다.

광주시장 표창은 유정숙(위너스 ENG), 김효연(삼성시스템), 김연홍(다스리·사진), 김향자(담미향), 강최고 여신심사역 및 외국환전문역,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등 전문가를 배치했다.

전남도지사 표창은 김달자(성원엔지), 문순자(한국아스팔트), 이영래(하이옥스), 안효순(서평전기공업), 배평순(형제조선) 대표가, 광주전남지회 방중소기업청장 표창은 김서연(서연애패럴), 윤순정(가구마을), 차명순(원앙익스프레스), 김정희(서일화성), 이춘례(히노) 대표가 받았다.

광주지방노동청장 표창은 노중현(청산뉴미디어), 신은식(DS하이테크) 대표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표창은 장소용(아프로), 임순영(임소연플러워), 김청민(에코주유소), 김진령(죽산정보) 대표가 각각 수상

했다. 조애옥 광주전남지회장은 창립 기념사에서 “강소기업의 소프트웨어가 대신 여성인 시대에 여성이 가진 강인함과 우수한 여성 인재의 사회 진출은 강한 여성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사회와 산업이 행복해지는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여성경제인을 대표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여성경제인의 지위 및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여성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지난 1999년 7월 창립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농협은행 광주 하남산단지점 개점

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부행장보 이근)는 25일 광산구 하남산단 내 경제고용진흥원(구 중소기업지원센터) 1층에 중소기업 밀착지원 강화를 위한 농협은행 하남산단지점을 개점하고 개점식을 가졌다.

농협은행 광주하남산단지점(지점

장 임영택)은 중소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최상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최고 여신심사역 및 외국환전문역,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등 전문가를 배치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OPEN SALE

천연원목 빈티지가구 / 소파 / 대리석식탁 / 온열·안마침대

CASATO

까사또 (가족/이태리어 상표등록)

광주점 금호월드 7층 45호 ☎062)350-8333

금남가구거리점 (유동사거리 옆) ☎062)381-3388